



밀알&세계 **MILAL & WORLD**

09 2020 | Vol.338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의 위력이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Post 코로나' 시대를 언제 맞이할 수 있을지? 아니면 'With 코로나' 시대를 당분간은 살게 될지 전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와 선교단체, 밀알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련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있는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과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5개월동안 팬데믹 상황 하에서 감당하고 있는 남가주 밀알선교단의 사역들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밀알 사랑나누기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모든 오프라인 모임(주중예배, 토요 사랑의교실, 사랑의캠프)이 중단되었습니다. 당장은 'Stay at Home' 행정명령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밀알 스태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생필품 등을 챙겨 각 가정들을 방문하여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기도해주고 돌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 잘 전달하고 나누고 왔다는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화요/목요일예배, 사랑의교실 등에서 함께 대면하며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사랑나누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소통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해 여전히 교회들과 후원자들과 네트워크를 계속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목요일예배와 사랑의교실도 줌 예배를 시작하여 함께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Drive-Through 방식으로 사랑의교실을 진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어려운 상황과 환경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소통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전세계 밀알 가족들

의 몸부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장애인/일반인이 하나되는 밀알 사역 특성상 가족들과 봉사자, 후원자들의 수고와 사랑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기에 사랑나누기 프로젝트라든지 온라인 줌 예배 등이 진행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겪는 힘든 시기입니다. 밀알에게 이 시기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장애인 전도/봉사/계몽이라는 장애인 선교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점검해보는 시기일 것입니다. 기존의 사역들과 Post/With 코로나 시대의 사역들을 비교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애인 선교사역이 되도록 몸부림 쳐야 할 것입니다. 명확한 대안과 앞으로의 사역 방향과 방법 등의 그림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시기를 보내면서 밀알에게 주는 교훈은 밀알은 늘 우선순위에 장애인을 두는 선교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장애인 가정들이 겪을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그들의 필요와 더불어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나누기를 통하여 단지 생필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한 공동체로 같이 이 시기를 겪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와 더불어 주님의 참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밀알공동체의 사명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에는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채워져 이 사역에 마음을 모아주는 밀알식구들과 후원자들이 갈수록 많아짐에 감격할 뿐입니다.

줌 예배와 Drive-Through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화요/목요일예배의 구성과 비교하여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이 장애인 가정들과 하나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장애인/일반인이 예배 구



표지사진: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정들을 돕기 위해 애틀랜타밀알에서는 '사랑의 바구니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작은 정성의 손길들이 모여져 장애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길 바란다.

차례

- 02. 칼럼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 04. 2020년 전반기 사랑의교실을 마치며
새로운 시대, 함께 적응해가요
- 06. New Era, New Method
Milal Class Agape through Zoom... is that possible?
- 08. 신앙 단상
요나의 외침을 기억하며
- 09. 따스한 위로
사랑하기 때문에
- 10. 인내의 시간
압박강가의 야곱처럼 저를 일으키신 주님
- 12. 함께 나누는 은혜
사랑의 바구니 나눔
- 14. 새로운 출발
최초 화상 단장 임명식
- 16. 재회의 기쁨
만나서 반갑습니다!

밀알&세계

워싱턴 · 리치몬드 · 샬롯 · 애틀랜타 · 시카고 · 마이애미 통합판

통권 제338호 | 2020년 9월호
발행인: 이재서 | 편집인: 이재철 | 편집책임: 이준수

지역별 구독문의
워싱턴: 301-294-6342 | 리치몬드: 703-762-6906
샬롯: 704-281-8318 | 애틀랜타: 770-717-0790
시카고: 847-877-4202 | 마이애미: 786-372-3014

월간 <밀알&세계>는 장애인들과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껏 만듭니다.

월간 <밀알&세계>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mweditor@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으로서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친구들의 특성을 꼭 넣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습니다. 장애인/일반인이 하나되어 드리는 선교적 예배를 통해 더욱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모으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로 밀알이 더욱 쓰임 받기를 소원해봅니다. 사실 기존 대면예배보다 줌 예배를 준비하고, 구성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일반인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을 더욱 친밀히 챙기고, 서로 도와주는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려는 밀알 식구들의 몸부림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시기를 인내와 성숙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밀알도 장애인 가정들과 더불어 다윗의 심정으로 안타까움과 탄식과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적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밀알도 진정한 장애인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장애인 선교 사역들로 열매를 맺었으면 합니다.

'속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맘껏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밀알과 밀알공동체를 얼마나 노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는지, 또 이 시기를 어떻게 장애인 선교의 기회로 삼으셨는지 우리 모두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속히'가 앞으로의 시간이 아닌 지금 이 자리, 우리 삶속에서 바로 시작이길 바랍니다. 🌈

글 | 이종희 목사 (남가주밀알 단장)



■ 2020년 전반기 사랑의교실을 마치며

새로운 시대, 함께 적응해가요

살다가 보니 별일이 다 있다. 생전 겪어 보지 못한 전염병 창궐... 옛날 사극에서나 볼 수 있던 전염병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에 동시 다발 적으로 퍼지고 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이 무슨 재앙이란 말인가. 이 재앙은 과연 하나님의 섭리인가?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재앙인가? 이유야 어쨌든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때문에 새로운 시대 속에서 거의 반 년째 살고 있다.

물론 그 덕분에 공기와 환경이 깨끗해지고 가족끼리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집 안에서만 같이 지내다 보니 많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코로나가 시작된 중국 우한 지역에서는 코로나 사태 후 이혼율이 부쩍 늘어났다고 한다. 특별히 장애인들을 가진 집안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그저 이 또한 지나 가리라는 막연한 생각에 장애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한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 정신이 돌아왔다. 아 이렇게 멍 때리며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 번쩍 들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온 세상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지만, 먼 나라 이탈리아에서 모두 집 안에 갇혀 밖으로 나오지 못 했을 때 발코니에 나와 음악을 연주하며

쓰레기통 뚜껑들을 두드리며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아! 우리 밀알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그래서 생각 해 보니 인터넷을 이용한 소통 방식이 생각났다. 사랑의교실 부모님들께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랑의교실을 다시 열 것을 통보하고 많은 협조를 요청했다. 의외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처음에는 많은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하루 종일 집 안에만 갇혀서 지내던 친구들이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다시 만남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즐거운 표정으로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즐거운 찬양과 율동을 하며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절로 난다.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해야만 새로운 소통 방식을 생각 해내는지, 왜 우리는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오지 못 했나 하는 후회도 없지 않다.

매주 토요일 아침 우리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들을 켜 놓고 친구들을 기다렸다. 친구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며 밝고



상기된 얼굴들로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며 꺽충꺽충 뛰는 모습들은 내 얼굴에 미소를 저절로 띠우게 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하는 간단한 인사말들과 함께 코로나 때문에 매주 나오던 사랑의교실에 나올 수 없어 무척 섭섭하다며 올해는 사랑의캠프도 못 가냐고 매주 똑 같은 질문들을 하곤 했다.

그렇다. 이번 주간이 사랑의캠프가 예약된 기간인데, 나도 많이 아쉽긴 하다. 일년 내내 사랑의캠프만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실망이 클까 생각하니 내 마음이 찡하다.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인데 어디로 놀러 갈 수도 없다. 그나마 인터넷을 통해 소통해오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마저도 멈추게 되어 얼마나 답답할까? 이제 겨우 다시 사회 생활을 시작하나 했는데,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피운다. 다시 열려던 우리 교회 현장 예배도 어쩔 수없이 다시 무기한 연기를 했다.

무언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 해주고 싶다. 우리 봉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구상 중이다. 이 사태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일이다. 어쩌면 내년에도 모일 수 없을 것 같다. 요즘 일반 교회 학교에서는 인터넷으로 여름성경학교를 하고 있다. 우리가 그 비슷한 활동들을 연구 중이다. 비록

사랑의교실은 방학을 했지만 그동안 우리들이 해오던 몰아주기 방법으로 매주 한 친구를 뽑아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오직 그 한 친구만을 위한 특별활동을 말이다. 그 즐거워하는 모습이 내 눈에 선하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담당 봉사자들과 부모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매주 한 친구를 뽑아 그를 최대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자기 차례를 기다린다. 어떤 친구들은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친구들은 춤 추기를 좋아한다. 친구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싸고 장난감이나 선물들을 정성껏 준비해 찾아가면 너무나 즐거워한다. 부모님들이 예외는 아니다. 금년 여름에는 볼티모어 지역에서 도매상을 하는 이광노 집사님께서 수박을 100통씩 그리고 50통씩 나누어 주셔서 정말 맛있게 나누어 먹었다.

워싱턴밀알 사랑의교실은 많은 봉사자들의 희생도 있지만 또 우리들을 위해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과 우리들을 위해 중보 기도로 밀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글 | 박성식 (워싱턴밀알, 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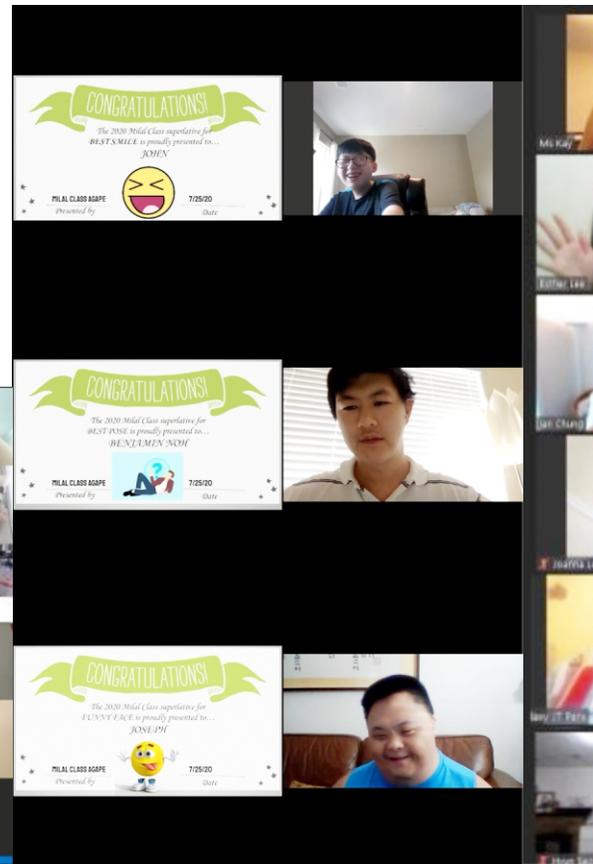
■ New Era, New Method

Milal Class Agape through Zoom... is that possible?

BIBLE VERSE

'FOR WE ARE GOD'S HANDIWORK,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EPHESIANS 2:10



July 25. Today was our last Saturday Class Agape meeting. It wasn't different from any other day, knowing that we were going to pick up where we left off in a month, but something about it weighed heavy on my heart. Out of my 15 years of serving, this semester is a semester I will remember for a long time.

It was a first of many things. Washington Milal has three campuses and we had never met together to plan other than meeting within our individual campus. This semester was different. We had never closed Milal this abruptly, and we didn't know if it was possible or even worth it to start a Milal class online. We took a break from Milal for a month after closing and finally decided to give it a chance, but we needed more than one person to think of an idea. Here come the firsts:

1. The campus leaders met every Wednesday night to prepare and share ideas to do a one-hour Milal class every Saturday. Prior to this year, I had naturally assumed that our age, cultural, language barriers, and time conflicts would never allow us to be on the same page or have similar issues. But through this meeting and collaborating with volunteers, we did so many new things that we would have never thought up on our own.
2. Virginia Milal volunteers wrote and mailed letters to their partners. It was fun to see our partners opening the letters personally written from a friend and sharing that experience through our video calls.
3. We did a joint Zoom meeting at the end of every month and held a dancing contest. We learned that cohosts can take turns spotlighting a specific participant so they get a turn to be the center of attention.
4. We dropped off reward bags to the winners of the



Zoom games.

5. Rockville Milal played Pictionary using the Zoom whiteboard.
6. We shared old photos, laughed, and praised together even if we couldn't be there in person.

Of course, there were Saturdays that weren't so easy. We would have a range of participants come into zoom; some days 30 participants, some days 6. Despite preparation and anticipation, we would run into sound issues or a member would get frustrated with something and leave the meeting. There were days when our partners asked us when we will meet in person again, and we couldn't give a clear answer. What was supposed to be a temporary fix of an hour Zoom meeting became the new normal. As much as we tried to meet everyone's needs, it was very difficult to make Zoom accessible and equitable for all our friends at Milal.

I left this last meeting bittersweet. I was so grateful for every participant that took their time to be together virtually. We laughed through our mistakes and body worship. It is such a small thing we did, but with the assurance that God was leading us, I am satisfied if even one person was touched by this meeting. God is so powerful in the way he brings people together amid hard times.

September is going to be here so soon and we are planning to make our meetings better than the previous, which is honestly even more of a challenge than the first time around. But with God's mercy and wisdom, we can do all things. May the glory of Christ be clearly seen in all we do! 🌊

글 | **Jenny Shin** (워싱턴밀알, VA 사랑의교실 디렉터)

요나의 외침을 기억하며

아무도 모르던 길에 떠밀려 첫 발자국을 내딛었습니다. 이름도 생소했던 병원체 하나가 온 마을과 도시 그리고 국가와 대륙들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바닥에 발걸음을 옮기며 불안한 길을 수개월 걷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다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추스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치료될 희망을 붙잡고 어두운 바닥에 발걸음을 내딛는 가쁜 숨 쉬는 사람들이 보였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역설적으로 희망을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치료제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예방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길에 위치를 확인하며 안내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마스크를 건네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길을 걷고 있으며, 언젠가 우리 모두의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이 길 또한 우리가 걸어왔고, 우리의 길이었으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야 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찾아가는 회복의 길을 찾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길의 끝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변해 왔습니다. 집밖을 나가지 못한 경험을 통해서, 이웃이 우리 삶의 행복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 존재들이었는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것이 내 것이어야만 한다고 배우고 가르치며, 경쟁을 통한 삶이 최선이라고 인정하던 우리의 자세를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등에게 찬사를 보내고 축복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 이면에는 경쟁의 나머지 사람들의 삶을 밟고 올라선 것이라는 미안함을 애써 외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웃이었음을 발견하는데, 이 고난의

길은 좋은 역할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주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서로 안부를 묻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얼굴 보는 것 만으로도 다시 만난 가족같이 미소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만 잘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의 결과를 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만, 우리집에서 먹고, 마시며 지내는 것이 마냥 행복하지 않다는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이웃과 교회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만나는 우리 목장식구들과 선생님과 아이들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위한 옵션이나 악세사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목표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배웠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경중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고립됨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는 것의 감사와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복을 발견하였습니다. 물질의 충족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것을 통해 받는 만족의 정도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10배 100배를 소유한 삶의 허무를 우리는 너무 자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0배 100배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독점하게 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제거하고, 차고 넘치는 삶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에게, 교회를 통하여 서로 나누고 돌보고 채워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점할 때 허무함이, 불안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삶 중에 이웃을 위한 축복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제하고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축복과 만족이 내 안에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길의 끝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 날에 우리의 삶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요나의 외침에 회개한 니느웨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회개에 도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글 | 김정기 목사
(북가주말일 단장)



■ 따스한 위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절을 하루 앞둔 토요일 저녁. 옆 방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짧은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아빠였습니다. 괜찮다는 아빠를 부축해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병실에서 뜯눈으로 밤을 샌 가족들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시 전에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준비해서 교회를 갈 참이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I am so sorry' 였습니다. 길어야 6개월이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 번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셨습니다. 아빠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부활절 주일이었지만 교회를 갈 수도,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간암 전문의가 찾아왔습니다. 삶의 질은 낮아지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하고 싶다면 색전술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아빠는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실 정도는 되었는데, 이젠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식당은 휴업을 하게 되었고, 아빠는 그 날부로 공식적인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는 동안 몸무게는 30 파운드나 줄어들었고, 마치 임산부가 태아로 말미암아 심한 입덧을 하듯이 아빠는 항암치료 이후 밤낮 할 것 없이 30분마다 헛구역질을 하셨습니다. 긴 병에 장사 없다고 했는데 겨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옆에서 간병하는 것이 힘이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가도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고,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오피스에 앉아 모니터 스크린만 보아도 과부하에 걸린 컴퓨터 마냥 얼굴에 열이 올랐고 호흡이 곤란해졌습니다. 그렇게 몸과 영혼이 바닥을 쳤을 때 장기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달만에 다시 회사로 복귀할 만큼 상태가 호전되었지만 그 후로도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과 같은 증상은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전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평안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크리스천으로서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에게 있는 아픔과 고통이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생명에 대한 사랑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피 흘림이 그의 부족함을 드러내기 보다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자고 싶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연민과 삶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수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한 심으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

글 | 이승민 전도사 (샬롯빌알 지소장)



■ 인내의 시간

압복강가의 야곱처럼 저를 일으키신 주님

이 들었습니다.

2년 전, 밴쿠버행 비행기를 타던 때가 생각합니다. 그날 저는 탑승일 며칠 전에 생긴 엄지 발톱 염증을 다 치료하지 못한 채 절뚝이며, 어린 두 자녀들을 데리고 ‘유학 후 이민’이라는 꿈을 비행기에 싣고 끝도 없이 넓고, 깊은 태평양 바다를 건너 생명부지 낯선 밴쿠버에 도착했었습니다. 도착한 날부터 또 다른 삶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리 부상을 입은 무명의 병사가 적군에 둘러 쌓인 심정이랄까! 그날의 막연한 두려움은 20년 전의 그날을 소환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아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주홍글씨의 여 주인공의 소설 속 삶이 현실이 되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걸 그 때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댁과 남편에게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고, 일반학교에서의 편견은 저를 주눅들게 했습니다. 제 자존감은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습니다. 그런 억눌린 피해의식이 응어리져 막연히 ‘자유, 평등, 박애’의 시민의식이 높은 선진국에서 남들 눈치보지 않고 천사들을 키우고 싶다는 큰 소망이 가슴속에서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성빈이 여동생을 뉴질랜드 단기스쿨캠프에 보냈을 때 그 꿈은 더 커졌고, 마침내 밴쿠버에 가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떠날 수 없었지만 떠날 수 있게 허락하셨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큰 용기가 났었습니다.

제 아들 성빈이는 올해 아름다운 스무 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3세부터 발달장애로 하루도 쉬지 않고 특수교육을 받으면서 한 번도 짜증이나 피를 부리지 않는 성실함과 주위 사람들이 아프면 주님께 치료해 주시라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천사입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저는 늘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심적 부담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루 두 번



예상치 못했던 COVID-19 대유행은 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에게도 그것은 갑작스레 귀국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귀국 후 우울감과 상실감이 격동하는 폭풍속에서 생존의 바다를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길을 잃은 저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조명해주시며 맘과 몸을 치유하고 계시는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밴쿠버밀알 이상현 목사님과 유혜정 사모님께서 ‘밀알&세계’에 글을 쓰도록 권유해주셨을 때, 감사한 마음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생각

씩 치료실에 데리고 다녔고, 15살 때까지는 저녁이면 항상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발음은 또렷하지는 않지만 듣는 귀가 트여 저녁마다 뉴스를 경청하며 매일 날씨를 가족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느라 네 살 터울 동생은 태어나서 8개월째부터 자동차 뒷칸이 침대가 되었고, 병원 대기실이 놀이터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그 땐 아들이 말을 잘하게 되리라는 소망 하나로 힘든 시간을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에 대한 두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전거 안장에 앉혀진 아이의 두려움도, ‘아이를 왜 힘들게 하느냐’는 핀잔소리도 귀담아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하루에 반나절씩 자전거 타기를 가르친 지 몇 주가 지난 후에 스스로 자전거를 타며 놀이터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할아버지와 공원에 가서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주 중의 스트레스를 날려보내고, 아빠와도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었습니다. 밴쿠버에 와서도 코퀴틀람의 Lafage Lake에서 저와 자전거를 타고 호숫가를 누볐습니다.

두 번째 소망은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1학년 입학식, 저는 아이 옆자리에 앉아 아이 손을 잡고, ㄱ, ㄴ, ㄷ 한 음절씩 음과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지칠 즈음에는 모니터 선생님(개인 학습쌤)을 붙여서 지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적인 모델이었지만 공교육에서 지원되지 않는 수업 방식이었기에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교한 후에는 다시 두 시간 몰입 한글수업을 하기 위해 한 시간을 운전하고 오가기를 2년을 하니 한글을 떼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한글 수업은 생존을 위해 보장받고 완성되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한글은 아들에게 많은 기적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지경이 넓어지게 해줍니다. 지인들께 편지쓰기, 길을 잃을 때 이정표가 되고, 마스크를 통해 듣는 이해력과 주변상황 파악능력이 향상되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글로 표현할 수 있어 내면의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긴 인생의 시간은 반드시 큰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됩니다.

동생의 뉴질랜드 단기스쿨캠프는 시련의 과정 속에서 얻은 실낱 같은 희망이었고,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자 했던 마음속의 거룩한 도전의 시작인 이민의 꿈을 위해 2년 여의 준비 후 성빈이 비자가 비교적 수월한 캐나다로 왔던 것입니다. 캐나다 유학생들은 동생 등교시킨 후 나머지 시간은 오

롯이 아들과 캐나다 도서관 유리창 앞 책상에서 한글책과 영어책을 빌려 읽고, 알파벳도 가르쳐 보았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재미있게 따라와 주었고, 1년 반만에 알파벳도 따라 쓰고,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톤치드가 풍부한 산책은 아이와 피곤에 지친 저에게 더할 나위없이 편안함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IELTS 점수와 아들은 알파벳을 떼는 기쁨의 시간도 잠시, 우리 가족은 COVID-19으로 급하게 국경봉쇄가 될 때 저의 고관절염증으로 출국할 때처럼 다리를 절뚝이며 귀국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커다란 짐을 밀고 나올 때의 모습은 마치 압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처절하고 먹먹한 심정이었습니다. 식솔들을 데리고 귀향 후 일어날 걱정과 근심을 가득 짊어진 야곱처럼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참담한 심정은 그저 비행기 안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히 집에 도착하길 바랄 뿐, 한국을 떠날 때 큰 꿈과 2번의 로키빙하 위에서 태극기 앞에서 당당한 모습은 이미 사라져 버린지 오래였습니다.

야곱처럼 고집 센 자의식과 오기로 여기까지 왔지만 주님이 환도뼈를 쳐서 순종하게 하고 고향으로 입성시킨 그 야곱처럼 저도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픈 중에도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돌아왔고 달라진 것도 없어 보이지만, 저의 사고방식은 이미 주님이 이끄신 선한 영향력과 폭넓은 경험으로 아들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지고, 어느 곳에 있으나 당당할 수 있는 자존감이 회복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서 보드랍게 품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밴쿠버와 전 세계 밀알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빈이한테 물었다

캐나다가 더 좋아, 한국이 더 좋아?

캐나다!

왜?

동생 공부해야 하니깐!

엄마를 깨우쳐 주는 아들

속 깊은 네 마음에 눈물이 나온다”

(2019년 4월 코퀴틀람에서 아들을 의지하며 유학 중 쓴 시)

글 | 조정화 (밴쿠버밀알, 유성빈 학생 엄마)



■ 함께 나누는 은혜

사랑의 바구니 나눔

유난히 더운 7월18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8시30분, 밀알 센터에 사역자들이 모여 밀알 가족들에게 전해줄 사랑의 바구니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차장에서 drive-through 방식으로 픽업하기로 하고, 목사님들은 밖에서 천막을 치고 테이블도 펴며 준비하셨고 다른 사역자들은 함께 나눔 선물 포장으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밀알가족들에게 전해질 선물을 보여 왠지 모를 감사함과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세계밀알연합에서 보내주신 마스크가 기폭제가 되어 밀알에서 준비한 라면박스, 이희양 이사장님이 준비하신 마스크, 김순영 이사님께서 후원해주신 그로서리 상품권, 장애인 체육회에서 후원한 축구공, 어떤 분이 무명으로 후원해주신 운동복 등 많은 분들의 사랑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50개의 바구니는 그냥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함께 걸어가는 위로이고 기쁨이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밀알 가족들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밀알가족들이 주차장으로 속속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



주일에 한번씩은 화상을 통해 보는 가족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가족들도 있어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반가움과 기쁨이 컸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마스크를 쓴 것 외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고, 늘 밝게 웃는 모습들을 보며 귀하고 귀한,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선물임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준비하는 사역자들을 섬기고자 샌드위치와 냉커피를 준비해온 밀알 가족들, 점심을 준비해주신 이사님 등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0을 10으로 나누어 1이 되는 세상 이치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번 사랑의 바구니 나눔을 통해 10을 10으로 나누었을 때 더 큰 사랑이 됨을 다시금 알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가족의 방문을 끝으로 준비한 50개의 선물이 다나가고 아쉬운 가운데 행사를 마치며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사역자, 이사님들 밀알가족들을 생각하며 시편 133편 1절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나눔의 현장에서 은혜로 내려왔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변화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나지만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밀알 가정, 가정마다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

글 | 손미란 간사 (애들랜타밀알 AMA 담당 디렉터)



텍사스밀알선교단 채경수단장 임명식

07. 06. 2020



■ 새로운 출발

세상일을 참으로 앞을 예측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2019년 8월 20일~23일까지 한국 세종대학교 태양관에서 밀알선교단 창립 40주년을 성대히 거행하였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역하던 밀알지도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향후 40년의 비전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대망의 2020년은 우리의 소박한 꿈을 여지없이 짓누르며 상황을 어려운 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COVID-19는 실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금방 지나가겠지. 별것 아닐 것이다’라는 예측을 뒤엎고 어느새 6개월째 세계 곳곳을

침범하며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미주밀알선교단도 지단마다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텍사스밀알선교단의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척 때부터 12년간 온 정성을 다해 밀알선교단을 섬겨오신 이재근 목사님의 신상의 변화가 생겨 부득이 사임하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 이끌어갈 새로운 단장님이 필요하였습니다. 여러 절차를 거쳐 채경수 목사님이 최종 후보에 올랐고 지난 1월 25일(토) 애틀랜타에서 이재서 총재님의 화

상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대화가 오가고 총재님은 결국 낙점을 하셨습니다. 채경수 목사님이 제2대 텍사스밀알 단장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이후 신임·단장님이 상견례를 갖고 사무인수인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텍사스밀알선교단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망하고 상처받은 장애인, 장애 가족, 봉사자들이 떠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결국 리더십의 교체 단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앞진 데 댄친 격으로 COVID-19가 엄습하면서 사역은 더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채경수 목

최초 화상 단장 임명식



사님의 단장 취임이 급선무였습니다. 총 단장님을 비롯하여 임원들이 텍사스에 가서 취임식을 거행할 계획도 세워보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상으로 일단 임명장 수여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합니다. 2020년 7월 6일 (월) 오전 11시(동부시간) 텍사스밀알 선교단 단장 임명식이 영상으로 거행되었습니다. ZOOM 화면에 미주 밀알 12개 지단, 2개 지소, 1개 연락소, 단장님들, 지소장님들, 연락소장님이 입장을 완료하고 개회되었습니다. 총단장 이재철 목사님의 사회로 시작된 임명식은 부총단장 최재후 목사님(애틀랜타밀알)의 간절한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이

재철 목사님은 성경 본문 사도행전 13:21~23을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다윗처럼 내 본분을 알고 성실한 사람, 겸손하게 헌신하는 사역자가 되라"고 설파하셨습니다.

이어 영상으로 도착한 세계밀알연합 총재이며 총신대학교 총장 이재서 총재님의 격려사, 세미연 부총재 강원호 목사님의 축사, 서부총단위원장 이상현 목사님의 권면이 이어졌습니다. 광고와 찬송 후 세미연 부총재 정택정 목사님의 축기도 임명식을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채경수 목사님의 약력 및 소개〉

1972년생이며, 국립군산대학교 전자공학과(B.A.) 졸업,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Master of Music Therapy)을 졸업하였으며,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016년 3월 미국 필라델피아로 유학을 와서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MAC(Master of Art in Counseling)와 상담학박사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육군학사장교(24기) 중위로 전역하였습니다. 가족으로는 임현정 전도사님 슬하에 예성, 예나 남매가 있습니다. 음악치료 전공자이며 장애인들을 사랑하는 마인드를 지닌 채경수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응원하며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글 | 필라델피아밀알 편집부



■ 재회의 기쁨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고 웃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 전염병이 가장 심했던 곳은 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되었고, 감염추세도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긋지긋한 자가격리도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집 안에만 갇혀 있던 장애인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뉴욕밀알의 스텝진들은 철저한 준비 속에 밀알의 장애인들이 외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명희, 은지, 순영, 태영, 민제, 친구들이 야외 치킨집에서 뭉쳤습니다. 한 번에 모두 만나는 것은 아직 바이러스의 공격을 안심할 수 없으므로 세 명으로 모임인원을 제한해야 해서 결국 남녀 그룹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외출을 준비하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교육한 후 오후의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이 일렁이는 햇살이 곱게 부서져 내려서 환해집니다. 이렇게 햇살이 좋은데 어쩌다 바이러스 천지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가볍고 힘찬 발걸음으로 향한 곳이 야외 치킨 레스토랑...

치킨 집에 모인 밀알 친구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별일 없었어? 잘 있었지? 건강하지?” 어눌하지만 서로를 챙기며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풍성한 먹을 것으로 야외에서 치킨을 같이 먹는 기분은 정말 돌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모습에 생기가 돌고, 평소와 다르게 서로 더 많이 먹으라며 챙겨주는 모습도 새삼 놀라와 보였습니다. 순영, 명희, 은지 세 단짝들은 이날 따라 더욱 가까워 보였고, 또 민제, 태영, 폴의 모습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전우들이 만나는 것처럼 즐거워 보였습니다. 마치 살아 돌아온 것을 자축하듯 치킨을 한 입 씹 베어 문

모습이 정겹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친구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기쁜 표정을 짓는 것을 보면 마음에 위로와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식사를 마친 친구들은 밀알 오피스에 들려서 각자의 소감과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얘기하며 이야기를 나눴고, 하나님께 친구들을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부디 이들의 모습이 코로나로 힘들어진 세상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는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심리적인 타격을 주었고, 서로를 만날 수 없게 만들어서 사회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정서와 사람다움의 표현까지 망가뜨리지는 못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오랜 격리 기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만나면 반가운 표정을 짓고 안부를 물으며 친구들의 건강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무섭고 떨리는 바이러스가 와도 우리의 영적인 본성은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욕밀알선교단은 이번 사태로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만난 친구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봅니다. 어려워서 한 동안 보지 못했고 서로 챙겨주지 못했지만 마음까지 그런 것은 아니기에 다시 만나면 전보다 더 반갑고 더 애뜻하고 더 간절하게 끌어안아 줄 것이고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6피트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악수하기를 꺼려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전보다 더욱 가까워져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나들이에 성공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힘이 나고 용기도 납니다.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기도합니다. 

글 | 뉴욕밀알 편집부

워싱턴

정기집회 안내

코로나 19로 인한 워싱턴밀알의 사역이 잠시 스쳐가는 독감 유행처럼 곧 다시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알았는데 개학의 기약이 없는 방학이 되고 말았다. 모든 사역이 중단되어 참으로 막연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 모두는 실감하고 있다.

성인집회 세 곳(볼티모어, 락빌, 버지니아)과 사랑의교실 세 곳(로열, 락빌, 버지니아)이 잠정적으로 휴강에 들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기만을 기다리는 가운데 상황이 완화되는 대로 사역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성인 Zoom 집회

볼티모어, 락빌, 버지니아 세 지역의 밀알들이 그동안 연합으로 모여 하나된 밀알로 자주 만나 연합하기를 원하였지만 사정과 여건이 쉽지가 않았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모여서 현 장애배를 할 수 없게 되어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 얼굴과 목소리를 함께 보고, 듣고 그동안의 근황을 알아가는 매개체로 Zoom 클럽을 개설하여 매주 목요일 7시에 밀알가족 누구나 함께 들어와 Zoom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8월 한 달 간 잠시 쉬를 갖고 방학에 들어갔다.

사랑의교실 리더 및 교사 준비모임

매주 리더모임을 통해 아동들의 참여도와 영의 양식과 알찬 프로그램을 위하여 기도하고, 각 지역의 상황을 연구하며 의논을 나눔으로 매주 한 주 한 주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락빌, 볼티모어, 버지니아 사랑의교실도 8월 한 달 방학에 들어갔으며 방학동안 리더 및 교사들은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밀알 사랑나눔기’ 후원해 감사

- 체감온도가 100도를 넘는 불볕더위에 밀알선교단 사랑나눔기 후원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후원해주신 베다니연합한인감리교회와 남선교회의 모아진 마음과 골프대회를 처음 열어 경험이 없으심에도 물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며 동분서주 행사를 진행해 주시는 박대성 담임목사님의 사랑의 마음에 큰 감동과 감사를 드린다.
- 늘 밀알을 사랑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이부숙 집사님과 주정아 자매님께서 밀알선교단에 직

접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해 주시며 격려의 마음을 전해주시어 참으로 큰 감사를 드린다.

- EDEN SENIOR CARE 강혜경 대표님의 새로운 기업을 통해 밀알선교단을 더 기억하게 되었다며,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장애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헤아려 사랑나눔에 귀한 헌금을 전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
- 매주 배달되고 있는 밀알 장애인가족들의 사랑 나눔 식품배달 소식을 접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온 가족과 심지어 8살짜리 손녀(Keycee양)까지 동참하여 모금운동을 펼치신 박정임 집사님과 후원과 식품배달에 김치를 제공해 주신 이상자 집사님, 박현숙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 이광노 집사님께서 연이어 3달째 수박 90통을 보내주셔서 밀알에서 준비한 식료품, 생필품 등을 추가로 준비하여 매주 한번씩 밀알 장애인가정에 보급하고 있다. 찌는 더위에 마트에 갈 수 없는 밀알가족들은 상상하고 아주 맛있는 수박, 특별히 중복더위에 한국에서는 수박으로 더위를 식히는 그 맛을 음미하며 모두의 갈증을 해소하듯이 무척이나 반가워 하며 감사의 전화가 빗발쳤다.
- 이분들의 삶 가운데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베풀며 섬기기를 즐겨하는 손길 위에 떡 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밀알&세계 발송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Social Distancing으로 밀알 스텝들이 하루에 조금씩 한 주간에 걸쳐 메일링 작업을 마쳤다. 밀알&세계는 장애인 사역의 홍보, 계몽을 담당하는 월간지이다. 봉사자의 글, 신앙간증, 밀알의 정신, 각 지역 소식 등이 실려 있는 이 월간지는 매달 워싱턴 지역에 2,000여부가 보급되던 것이 재정상 지출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기 위해 1,500여부가 발행되며 밀알 단원들과 후원자들에게 무료로 배부되고 있다. 밀알&세계를 정기 구독을 희망하시거나 주소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밀알선교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 워싱턴밀알선교단 사무실 301-294-6342, Email: milalusa@gmail.com

단장 동정

- 7월 한 달 간 영상예배를 드리며 Zoom 예배를 개설하여 매주 목요일 밀알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랑과 격려를 보내고 있다.

- 7월25일: 장애인가정 식품배달 방문 심방
- 7월26일: 유기종목사님 고별예배(워싱턴밀알선교단/6:00pm)

후원 안내

워싱턴밀알에 아래와 같이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 Paypal: Milalusa@gmail.com
- Amazon smile: American Wheat Mission (Rockville)
- Venmo: @Washington-Milal
- 우편: American Wheat Mission / 13925 Travilah Rd., Rockville, MD 20850
- Pay to the Order: American Wheat Mission

함께 기도해주세요

- 면역력이 약하고 소통과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밀알가족들이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 이번 사태로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랑의교실 송연 가정과 고 김수성 단원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기를
- 밀알가족들의 식품 공급을 위하여 이 상황에서도 동분서주하며 뛰어 다니시는 박성식 총무님과 정일본 사모님, 그 외 밀알 스텝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 세 곳 사랑의교실을 진행하고 수고하시는 정인정 전도사님, 박성식 총무님, Jenny Shin 선생님, 에스더 리 선생님, 정일본 사모님을 위해
- 코로나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사랑하는 밀알가족들과 기쁨으로 만나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살롱

Academic Assistance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의 학교 온라인 수업을 돕기 위한 ‘Academic Assistance Service’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런칭하는 프로그램은 COVID-19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발달장애 학생들의 수업준비와 학습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팬데믹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됩니다.

Homeless Ministry

샬롯 업타운에 위치한 버스터미널에 가면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에는 COVID-19으로 인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연중사역의 일환으로 Men's Shelter에서 점심식사를 나누고, 홀리스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나눠주었던 것을 정기모임으로 전환하여 간단한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필요한 재정과 물품이 공급되고,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안전과 건강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차가버섯 펀드레이징

면역력 강화에 뛰어나고, 항암 효과가 있으며, 성인병과 심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최상급 Organic 차가버섯 분말을 판매합니다. 밀알에서 판매하는 차가버섯은 북부 캐나다 산으로 한 팩에 200g 들어있으며 가격은 \$40 입니다. 개인 혹은 선물용으로 많은 구입 부탁드립니다.

복용 방법 (커피머신을 이용할 경우)

- 커피 대신 커피 분량의 거의 절반을 커피머신에 넣는다. 기호에 따라 커피와 차가버섯을 섞어도 된다.
- 미지근한 물로 커피와 같이 내린 후 마시면 된다. (끓는 물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샬롯밀알 웹사이트

샬롯밀알선교단의 주중모임과 주말모임의 활동모습은 www.milalmission.org 혹은 유튜브 채널에서 '샬롯밀알'을 검색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후원안내

샬롯밀알은 물질후원, 기도후원, 봉사후원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물질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Check Payable to "Wheat Mission in Charlotte"로 기재하시고, PO Box 2605 Indian Trail, NC 28079로 보내주시거나, 아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 혹은 아래 링크로 접속한 후 Paypal 을 이용하여 크레딧 카드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First Citizens Bank / Account# 008390090908 / Routing# 053100300
www.milalmission.org/support-us

기도제목

- Academic Assistance Program을 섬길 Tutor와 잘 연결될 수 있기를...
- Respite Saturday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밀알의 장애인, 봉사자,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리치몬드

사랑의교실 (8월)

- 방학 중 / 6일(월): 사랑의 선물 (우편발송)

목회자 사역 일정

- 5일(일): 워싱턴중앙장로교회 (류응렬 목사 / 12:15 pm) 인터넷 예배
- 8일(수): 밀알&세계 발송
- 12일(일): 워싱턴중앙장로교회 (류응렬 목사 / 12:15 pm) 인터넷 예배
- 19일(일): 워싱턴중앙장로교회 (류응렬 목사 / 12:15 pm) 인터넷 예배
- 26일(일): 평강장로교회 (서보창 목사 / 11:00 am) 창립기념 예배 참석

기도제목

-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두를 지켜 주소서
-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장애인들과 학생 봉사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 잔유 형제가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 그레이스가 직장 취직할 수 있도록
- 마태 형제 집이 매매될 수 있도록
- 만화(그림)성경과 신앙도서들을 일독할 수 있도록
- 코로나-19가 하루 속히 종결되어 밀알이 다시 개강할 수 있도록

애틀랜타

'사랑의 바구니' 전달

8월 22일(토), 모든 밀알가족에게 제 3차 '밀

알 사랑의 바구니'를 밀알선교센터에서 전달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랑의 바구니는 슈가로프한인교회에서 라면과 쌀, 마스크와 야채 등 풍성한 바구니를 50가정 분을 만들어 후원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후원으로 섬겨주신 슈가로프한인교회 최봉수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역자 모임

8월 6일, 밀알 사역자 모임을 화상채팅으로 가졌습니다. 사역과 재정 보고를 먼저 나누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반기 계획 중인 AMA 프로그램과 사랑의교실 그리고 일일찾집과 밀알의밤 행사에 대하여 함께 토의한 후 하반기 일일찾집과 밀알의밤 행사는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AMA 프로그램과 사랑의교실 오픈은 9월까지 코로나 상황을 지켜본 후 차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애틀랜타밀알 아카데미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반기 AMA 개강이 아직 미정입니다. 대신에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화상채팅으로 모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게임과 특별활동으로 함께 하는 AMA 모임에 초대합니다. 특별활동을 인도해 주시는 황세희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AMA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합니다. 빨리 코로나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앞으로 AMA프로그램이 더욱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길 바랍니다. AMA에서는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전문 선생님과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AMA에 등록하기를 원하는 성인 장애인 친구들과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봉사자는 밀알센터 (404-644-3533)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교실 (슈가로프 밀알 & 놀크로스 밀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반기 사랑의교실 개강이 아직 미정입니다. 토요 사랑의교실은 슈가로프 사랑의교실과 놀크로스 사랑의교실이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랑의교실은 장애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목적을 가지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놀크로스 지역과 슈가로프 지역 2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양, 말씀, 기도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1대1 성경공부 및 다양한 특별활동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교실에서는 점심봉사

로 섬겨주시길 교회나 개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교실에서 함께 섬김을 나누기 원하시는 자원봉사자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사랑의교실 for 놀크로스 지역 담당자(하현지 간사) 770-310-5223
- 사랑의교실 for 슈가로프 지역 담당자(서혜권 목사) 678-862-3314

밀알미용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밀알 미용이 8월까지 취소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지 못한 밀알 미용은 10월에 오픈하려고 합니다. 밀알미용으로 섬겨주시는 김충실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밀알선교센터 마련을 위한 모금 캠페인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애틀랜타 밀알 선교센터 마련을 위한 \$500,000 모금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사역에 적합한 장소로 이전하여, 사랑의교실, AMA 프로그램, 주중특별활동 등 밀알의 다양한 사역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활발하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밀알선교센터 마련을 위한 \$500,000 모금캠페인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www.atlmlal.com 밀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Paypal을 통하여 직접 가입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전화, 우편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밀알선교센터 마련을 위한 모금캠페인이 은혜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금캠페인 동참 방법>

- Pay to order: Wheat Mission in Atlanta (P.O. Box 635 Duluth, GA 30096)
- <온라인 송금안내>
- 은행이름: PromiseOne Bank
- Account Number: 0112000542
- Beneficiary Name: Wheat Mission in Atlanta

추천도서

박성하 집사님의 저서 '평신도가 본 신학과 신앙'이란 책을 \$15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책 구입은 애틀랜타 기독교화점(678-765-8939), 애틀랜타 말씀사(770-310-6381) 또는 밀알센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주문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이 책의 모든 판매 대금은 애틀랜타 밀알선교센터 구입기금

마련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커피 방향제 및 카드판매

밀알선교 사역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커피 방향제와 카드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피 방향제를 판매할 판매처를 찾고 있습니다. 커피 방향제 구입과 판매를 원하시는 분은 밀알센터로(404-644-3533)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밀알센터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적합한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 코로나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 양영선 장로님, 제임스 어머니, 이병유 집사님, Mr. Wozniak 선생님 모두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밀알사역 동정

- 8월1일: 밀알&세계 발송작업
- 8월6일, 13일, 20일, 27일: AMA 모임 (화상채팅으로)
- 8월6일: 사역자 모임 (화상채팅으로)
- 8월22일: 3차 사랑바구니 전달

시카고

사랑의교실 (토요일 & 주일 & 주중)

토요 사랑의교실: 시카고밀알선교단의 사랑의교실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밀알선교단 복지관에서 모임을 갖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체조를 비롯한 액티비티와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등 각종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재활 프로그램을 갖고 장애인 1명에 봉사자 1명씩 1대1로 장애인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일 사랑의교실: 발달장애인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주일에 교회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기 쉽지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밀알선교단에서는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랑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맡기고 각자의 교회에 가서 편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교실 활동들

토요 사랑의교실 그리고 주일 사랑의교실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임시 방학 중입니다. 집에만 있는 장애인 친구들이 무척 심심해 할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매일 집에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장애인 친구들의 건강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교실 오픈 연기

7월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토요, 주일 사랑의교실을 연기했습니다. 일리노이 주도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나와서 함께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염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오픈할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빨리 다시 모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밀알선교단에 필요한 물품을 C B Supply (대표: 정선량 장로님)에서 기증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센터(복지관)

밀알선교단 복지관은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종합 선교와 복지 센터를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요일, 주일 사랑의교실을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을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개방합니다. 사용을 원하는 분들은 밀알선교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관 주소: 855 N Sterling Ave, Palatine, IL 60067

'밀알&세계' 안내

시카고밀알선교단에서는 월간지 '밀알&세계'를 매월 1,000부씩 발행하여 400부는 각 독자들에게 우편으로 배달되고, 600부는 교회와 마켓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밀알&세계 발송을 위해 김선유 자매가 매월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은 글이나 미담 등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및 주소 변경 시 밀알선교단 연락처는 847-877-4202, e-mail: chimit94@gmail.com입니다.

재정보고 2020년 7월

워싱턴

수입부: \$25,839.08

Md개인: \$6,536.08 \$1 Kaycee / \$20 윤영상&루미, 채재동 / \$40 우동호&자영 / \$50 송우선&주희, 황만균&김혜수, 최귀학&최혜숙, 엄덕수, 이정숙, 김옥련, 손을순 / \$100 Richard N. Bontz, 홍두표&배정숙, 박재연, 송요숙, 최윤광&최미진, 노순애 / \$105.08 양재영&남혜옥 / \$200 정인정&정소연, 최병렬, 안창우&세라 / \$300 정택정&정일본 / \$500 김문중, 김주호&박현숙, 이성현&신동환, 이부숙&이동희, 박정임 / \$2,000 주정아

VA개인: \$1,260.00 \$20 양유순 / \$30 이순정, Kwang J. Yoo & Young, 이정자 / \$50 김부순 / \$100 이영숙, 이승희, 신제영&김순애, Helen Ok Song, / \$200 하창식&순덕, 최현규 / \$300 김영신

MD교회: \$7,882.00 \$100 제일침례교회, 메릴랜드크리스찬교회, 로렐 한인침례교회 / \$150 영광장로교회 / \$200 볼티모어연합교회, 헤거스타 운한인교회, 가든교회 / \$250 세미한장로교회 / \$600 Abiding Presence Lutheran Church / \$2,300 솔즈베리한인장로교회(한나,베드로,디모데) / \$3,68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

VA교회: \$3,081.00 \$25 스테포드장로교회 / \$100 워싱턴예수사랑교회, 워싱턴성광교회, 꿈과사랑의교회, 워싱턴평강장로교회, 조이장로교회 / \$200 신실한교회, 워싱턴한인장로교회 / \$256 겨자씨교회 / \$300 맥클린한인장로교회, 와싱턴중앙장로교회 / \$400 주님의교회 / \$900 버지니아장로교회

기타 개인: \$600.00 \$100 안메리, 안정선 / \$200 이종화, 채창섭&채남희

단체: \$4,700.00 \$100 Washington Cleaners / \$200 Luxe-T, Inc. / \$300 Four Corners Foundation(김희철&혜자) / \$500 이상자(Sungwon Inc.) / \$600 지구촌마켓 / \$3,000 Eden Senior Care Service(강혜경대표)

지정후원금: \$1,780.00 \$80 리치몬드밀알 / \$700 워싱턴복음장로교회 / \$1,000 시카고밀알

지출부: \$23,033.69

사무비: \$3,421.39 웹사이트관리비 \$45 / 정수기 \$58.99 / 사무실인터넷&전화 \$217.76 / Tax Deposit \$930.08 / 휴대폰비 \$122.38 / 회계사비 \$100 / 사무용품 \$172.36 / 일회용품 \$367.58 / 컴퓨터구입 \$692.16 ITalkBB \$39.36 / MD Tax \$381.72 / VA Tax \$294

문서선교비: \$1,996.29 밀알&세계 발송비 \$571.29 / 밀알&세계 인쇄비(7월) \$1,425.00

사랑의교실: \$907.24 사랑의교실 구제비 \$107.24 / 교사사례1 \$250x2 / 교사사례2 \$300

전도활동비: \$10,360.65 장애인코로나 식품구입 \$2,173.82 / Massmutual \$303.41 / 장애인보조(구제) \$400 / 조의금 \$700 / 캄보디아선교비 \$500 / 지단후원 \$400 / 사역자사례(A) \$900x2 / 사역자사례(B) \$600x2 / 간사사례(A) \$941.71x2 / 간사사례(B) \$500x2

차량관리비: \$1,541.97 Kia Van Gas \$154 / Honda Van Gas \$108.90 / 차보험 \$402.36 / EZPASS \$25 / 라이드비 \$200 / Honda Van 수리 \$651.71

지정: \$3,128.72 사택비 \$1,840 / Gas지정 \$100 / 상회비(5월) \$1,188.72

기타: \$1,677.43 전기세 \$285.36 / Mortgage \$1,289.36 / 코로나방역비 \$102.71

전월이월금: \$63.04 | 차월이월금: \$2,868.43

샬롯

수입부: \$2,500.00

개인: \$1,100.00 \$20 권정미, 박영임, 임희강 / \$40 이기웅 / \$50 김미현, 문수미, 박상근, 이용환, 정설아 / \$100 최종은 / \$150 이승민 / \$200 강봉화 / \$300 오지누

교회 및 단체: \$1,400.00 \$50 샬롯중앙침례교회, 샬롯화요모임 / \$100 드림교회, 샬롯SDA / \$300 하모니교회, 웨잇빌한인장로교회 한나선교회 / \$500 Palmetto Dentistry

지출부: \$2,075.86

사랑의교실: \$150.00 사랑의교실매뉴얼 \$15 X 10

사무행정: \$175.86 \$3.20 Paypal Fee / \$7.50 Bank Fee / \$15.16 홈페이지 도메인 / \$150 Insurance

선교후원: \$50.00 방글라데시밀알

선교사역: \$1,700.00 \$700 사례 / \$1,000 주택보조

전월이월금 \$8,103.77 | 차월이월금 \$8,527.91

복지센터기금 \$3,000.00

리치몬드

수입부: \$3,350.00

개인 및 단체: \$3,350.00 \$100 애플츄리덴티스트리, 이해경, 평강장로

교회 / \$200 새누리교회 / \$300 주예수교회 / \$350 버섯판매 대금(워싱턴교회협의회) / \$1,000 정혜인 / \$1,200 리치몬드교회협의회

지출부: \$2,311.79

사랑의교실: \$327.19 선물 및 우편발송

문서선교비: \$178.00 \$80 밀알&세계 구입 / \$98 우표구입 및 발송

사무&관리비: \$169.00 \$35 셀폰비 / \$134 상회비(7월)

차량관리비: \$397.60 \$150 보험료 / \$247 월페이먼트

사역자사례비: \$1,240.00 사택비 보조(7월)

전월이월금: -\$1,218.26 | 차월이월금: -\$180.05

애틀랜타

수입부: \$6,994.00

개인: \$2,144.00 \$20 정선호 / \$30 이준남 / \$50 장명자, 조현정, 한에스터 / \$100 김남미, 홍금주 / \$200 서은경, 정테니얼 / \$300 최다영, 최재휴, 하현지 / \$444 최다정

교회 및 단체: \$4,250.00 \$50 NINA BEAUTY SUPPLY / \$100 크리스탈한인교회, 명카이로프랙틱, 밀알클리닉, FAITHHOPE, INC. / \$200 실로암장로교회, 올랜도 섬기는장로교회, 주빌리장로교회 / \$300 아틀랜타새교회 / \$400 섬기는교회, 잔스크릭한인교회 / \$500 한비전교회 / \$600 성약장로교회 / \$1,000 아틀랜타연합장로교회

지정 및 회비: \$600.00 김신애사모 \$100(FAITHHOPE, INC.) / 샬롯밀알 \$200(최다영) / 장애인장학금 \$300 (박성하)

밀알센터 후원기금: \$4,246.15 \$15.15 은행이자 / \$31 조성은 / \$200 손홍민&하은 / \$1,000 최재휴 / \$3,000 이희양

지출부: \$12,715.22

문서선교비: \$2,483.00 \$93 사무용품 / \$200 Bulk Mail 발송비 / \$1,090 밀알&세계 인쇄비(3,4,5월) / \$1,100 밀알&세계 발송봉투

선교사역비: \$2,593.94 \$50 노크로스 사랑의교실 특별활동 / \$100 샬롯밀알 / \$300 Ally / \$505.95 AMA / \$637.99 사랑의바구니 / \$1,000 슈가로프 사랑의교실

지정후원금 지출: \$800.00 \$100 김신애사모 / \$200 무명 / \$200 샬롯밀알 / \$300 장애인 장학금

사역자사례비: \$4,045.23 \$831.15 간사 / \$3,214.08 단장사례

관리비: \$1,668.05 \$21.20 물 / \$84.74 오물세 / \$95 Credit Card Annual Fee / \$100 복사기 렌트 / \$111 Gas / \$117.47 전화 및 통신

/ \$140.16 밀알센터 가스비 / \$192.54 밀알센터 관리비 / \$265 전기세 / \$540.94 밀알밴 보험

기타: \$325.00 도서구입

전월이월금: \$7,920.34 | 차월이월금: \$2,199.12

시카고

수입부: \$8,010.00

이사후원금: \$700.00 \$100 김신, 한준일 / \$200 남성우 / \$300 김인자

실행단원 후원금: \$210.00 \$10 김선유 / \$200 익명

개인후원금: \$2,050.00 \$10 이강석 / \$20 장재영, 전승평 / \$30 류정민 / \$50 권효섭, 김명희, 박세진, 박영일 / \$100 SeanLee, 김영진, 김일웅, 배연주, 박수경, 이선비, 익명 / \$120 지동식 / \$200 박영희, 임문순 / \$250 전성철 / \$300 이형우보험

교회및단체후원금: \$2,400.00 \$100 갈멜장로교회, 레익뷰언약교회, 리빙스톤교회, 온유한교회, 헬로쉽교회 / \$200 가나안교회, 미드웨스트장로교회, 빌립보교회, 삼버그침례교회, 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 시카고기쁨의교회 / \$300 노스필드장로교회 / \$400 벨엘장로교회

지정: \$2,650.00 \$50 김정숙 / \$100 소스어페럴 / \$500 온유한교회 / \$1,000 시카고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전하는교회

지출부: \$8,816.36

선교사역비: \$3,350.00 사례 \$1,300 / 주택보조 \$1,900 / 퇴직적립 \$150

사랑의교실: \$1,100.00 교사사례비

관리비: \$70.06 Gas

복지관: \$1,499.22 가스 \$122.60 / 전기 \$595.94 / 쓰레기 \$115.95 / 물 \$57.25 / 건물보험 \$487.48 / 유지비 \$120

행정비: \$467.09 세금 \$99.45 / 신용카드수수료 \$89.64 / 회계사비 \$70 / 상회비 \$208

사무비: \$284.02 전화비 \$78.85 / 인터넷 \$159.17 / 사무비 \$46

홍보비: \$1,045.97 밀알&세계발송 \$192.97 / 밀알&세계인쇄 \$853

기타: \$1,000.00 사랑의캠프

전월이월금: \$19,122.74 | 차월이월금: \$18,316.38



밀알선교단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장애인 발걸, 장애인 방문 예배, 장애인 성경공부, 단원 정기모임, 병원전도, 사랑의캠프, 장애아동 사랑의 교실, 밀알지부 개척, 선교사 파송 및 지원

서로 어려움을 나눕니다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녹음, 복지홈 운영, 수어통역, Ride 봉사

신앙공동체에 참사랑을 심습니다

교회 및 단체 방문 찬양과 설교, 수어교육, 밀알의밤, 장애인의 날 행사, 매월 <밀알&세계>발간, 장애인 선교방송

후원방법: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가까운 밀알선교단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밀알단원 신청서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이메일: _____

단원종류: 기도단원() 실행단원() 후원단원() 월 \$5() \$10() \$20() \$30() \$50() \$100() 그외 \$()

서명: _____ 날짜: _____

The World Milal Association 세계밀알연합

서울 동작구 솔밭로 97-6, 3층 / Tel: 02-533-9251 / Fax: 02-533-9258 / wmilal@worldmilal.org

American Milal Mission Inc. 미주밀알선교단

423 Derstine Ave. Lansdale, PA 19446 / Tel: 215-913-3008 / Fax: 215-362-3940 / Email: philamilal@hotmail.com

Milal Mission in Chicago 시카고밀알선교단

855 N Sterling Ave, Palatine, IL 60067

Tel: 847-877-4202 / Fax: 847-496-4942 / Email: chimil94@gmail.com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주일 오전 10:30 ~ 오후 2:30 시카고밀알 선교복지센터 855 N Sterling Ave, Palatine, IL 60067
문의: 847-877-4202

American Wheat Mission 워싱턴밀알선교단 | www.washingtonmilal.org

13925 Travilah Road, Rockville, MD 20850 / Tel: 301-294-6342 / Fax: 301-294-6195 / Email: milalusa@gmail.com

정기집회 볼티모어: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뱌엘교회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워싱턴: 매주 화요일 오후 7:00 워싱턴밀알선교단 13925 Travilah Rd., Rockville, MD 20850
 버지니아: 매주 목요일 오후 7:00 메시아장로교회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사랑의교실 볼티모어: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2:30 로럴침례교회 10624 Scaggsville Rd., Laurel, MD 20723
 워싱턴: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2:30 워싱턴밀알선교단 13925 Travilah Rd., Rockville, MD 20850
 버지니아: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2:30 와싱턴한인교회 1219 Swinks Mill Rd., Mclean, VA 22102

Milal Mission in Richmond 리치몬드밀알지소 | www.richmondmilal.wordpress.com

10201 Robious Road, Richmond, VA 23235 (리치몬드주예수장로교회) / Tel: 703-762-6906 / Email: milalrichmond@gmail.com

밀알모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 11:30 리치몬드주예수장로교회 10201 Robious Road, Richmond, VA 23235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1:00 ~ 오후 2:30 리치몬드주예수장로교회 10201 Robious Road, Richmond, VA 23235

Milal Mission in Charlotte 샬롯밀알지소 | www.milalmission.org

2817 Mt Harmony Church Rd, Matthews, NC 28105 / PO Box 2605, Indian Trail, NC 28079 / Tel: 704-860-1388 / Email: charlottemilar@gmail.com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2:00 Mt. Harmony Baptist Church 2817 Mt Harmony Church Rd, Matthews, NC 28105
밀알컬리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 오후 4:00 밀알센터

Milal Mission in Atlanta 애틀랜타밀알선교단 | www.atlmilal.com

P.O. Box 635, Duluth, GA 30096 / Tel: 770-717-0790, 404-644-3533 / Email: atlmilal@gmail.com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애틀랜타밀알선교센터 4281 Steve Reynolds Bl., N.W., #5, Norcross, GA 30093
사랑의교실 for Kids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슈가로프 한인교회 1664 Old Peachtree Rd. NW, Suwanee, GA 30024
애틀랜타밀알 아카데미 매주 화,수,목,금 오전 10:00 ~ 오후 3:00 애틀랜타밀알선교센터 4281 Steve Reynolds Bl., N.W., #5, Norcross, GA 30093
밀알미용 매달 둘째주 목 오후 3:30

Milal Mission in Miami 마이애미밀알연락소

P.O. Box 431455, South Miami, FL 33243 / Tel: 786-372-3014 / Email: miamimilal2019@gmail.com

전세계에 퍼져있는 밀알들

세밀연 미주총단 워싱턴 / 리치몬드 / 샬롯 / 필라델피아 / 시카고 / 뉴욕 / 뉴저지 / 애틀랜타 / 시애틀 / 북가주 / 남가주 / 텍사스 / 마이애미 / 캐나다(토론토)
 밴쿠버 / 브라질 / 파라과이 / 아르헨티나

세밀연 유럽총단 북부독일 / 중부독일 / 남부독일 / 베를린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스페인 / 포르투갈 / 헝가리 / 벨기에 / 우크라이나 / 바르셀로나 / 베오그라드 / 코소보

세밀연 한국총단 경기 / 전남동부 / 김포강화 / 거제통영 / 목포 / 부산 / 수원 / 용인 / 고양 / 구미김천 / 양산 / 경기광주 / 고흥보성

기타지역 뉴질랜드 / 호주 / C국(A,B) / 방글라데시